



## 유례없는 가뭄으로 보험회사 대규모 손실 전망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최근 미국에서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옥수수과 콩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작물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.

- 미 연방정부는 농작물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재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, 이번 가뭄으로 인한 민영보험회사의 손실이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S&P는 전망함.
- 일리노이 대학의 농업경제학자들은 이번 가뭄으로 인한 한 손손실<sup>1)</sup>을 180억 달러로 추산하였으며, 이중 정부 부담금 140억 달러를 제외한 보험회사의 손실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- 모건 스텐리의 애널리스트 Gregory Locraft는 이번 가뭄은 진정한 대재해이며,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농작물보험 손실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함.

■ 가뭄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정확한 피해액은 수확이 끝나는 4/4분기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, 농작물보험이나 피해지역에 특화된 보험회사에 손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.

- 농업경제학자들은 4/4분기 이후 농작물 수확이 끝나고 손해사정인들이 전국 농지를 방문한 후에야 정확한 손실액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이번 가뭄으로 인한 피해 지역은 전체 옥수수와 콩 재배면적의 87%, 85%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.
-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농작물보험에 특화되어 있는 소형 보험회사 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보험회사들이 이번 가뭄 피해에 특히 취약할 것이라고 밝힘.
- 한편,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3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 왔던 농작물보험 지원 프로그램의 축소를 주장하던 정치권은 이번 가뭄피해를 계기로 농작물보험 지원확대로 입장을 바꿈.

(Financial Times, 8/26)

1) 농작물 피해 보상액에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.